

어린이 책꽂이

▲딸은 아들이 아니다=해박한 역사 지식을 갖고 있는 할머니와 손녀딸의 대화를 통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본 책이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딸들의 역사'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로마, 기독교, 프랑스 혁명 등 총 9장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세움·1만2천원>

▲달 강아지=아름다운 달을 배경으로 달 강아지와 달 할아버지의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 멋진 요정들을 따라 달을 떠난 강아지가 할아버지와 달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환상적인 분위기의 그림과 함께 생생하게 펼쳐진다. <어린이 작가정신·9천800원>

▲생생한 역사화에 뭐가 담겨 있을까=수 천년 인류 역사를 기록한 역사화들을 통해 역사와 인간을 배우는 그림책이다. 시원하고 화려한 도판과 친절한 그림설명, 그림찾아보기 코너 등이 실려 서양 미술사의 흐름과 화풍, 시대배경도 이해할 수 있다. <다섯서레·1만2천원>

▲돌멩이 수프=프랑스의 옛 이야기를 토대로 한 이 책은 굵주림에 시달린 군인들이 돌멩이 수프를 끓인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인들이 돌멩이 수프를 끓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사람들은 조금씩 숨겨놓은 음식들을 하나둘씩 가지고 나오고 어느새 돌멩이 수프는 다양한 음식 재료들로 가득차게 된다. <시공주니어·9천원>

▲유일한, 한 그루 버드나무처럼=식민지가 된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인으로 살다간 유일한 박사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 '유한양행'을 설립해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에 되돌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봄나루·8천500원>

# '맘마'가 일본말이었다니...

## 빠꾸와 오라이 황대권 지음

'야생초 편지'로 유명한 황대권(52)씨는 구미유학생 간접단 사간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3년 2개월을 복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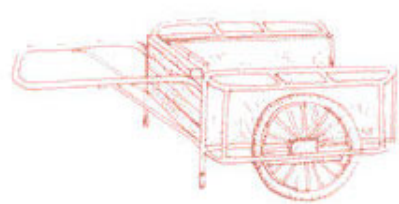
1993년 안동고교소에 수감중이던 그는 어느날 책을 읽다 평소 우리말이라고 여겼던 '맘마'라는 단어가 일본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언어 세계에 섞여 있는 일본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무식한 짓'을 시작했다. 1천 700페이지짜리 일한(日韓) 사전을 처음부터 한장씩 읽어 나가며 '우리말 속 일본말' 목록을 뽑아 나간 것이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생초 편지'를 보냈듯, 동생에게 하루 한통에 가까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황씨가 펴낸 '빠꾸와 오라이'는 저자가 우리말로 알았던, 또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박혀있는 일본말 240개를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들려주는 육중서간집이다. 저자는 일상생활에 쓰였던 단어들을 추적함으로써 그 시절의 삶을 재구성하는 가벼운 '언어의 사회학' '언어의 인류학'을 꿈꾸며 편지를 써 나갔다.

책을 읽다 보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된다. 먼저 한국어 인종 알았던 일

## 찌찌·땡깡 등 우리생활 속 일본말 240개 어린시절 추억과 함께 들려주는 육중서간



영어 'rear car'의 일본식 발음인 '리아카'.



일본말 '가마니'에서 유래한 '가마니'.



프랑스 바리캥 에 마르사의 이름에서 따온 '바리캥'.

##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사랑과 죽음

### 알고보면 매혹적인... 미사오 지음

유럽 문화사를 소개하고 있는 일본인 베스트셀러 작가 기류 미사오가 이번엔 죽음을 주제로 잡았다.

'알고보면 매혹적인 죽음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사랑과 죽음, 그리고 에로스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저자는 역사는 물론 신화, 성경, 동화, 문학 및 예술작품 등에 나타난 죽음들을 찾아내 에로스, 욕망, 집착, 자살, 임종 등 다섯 가지 테마로 엮었다. 로마 황제를 위해 순교한 미소년 노예, 죽음의 도시로 불리는 벨기에 브뤼주, 20세기 초 파리와 런던에 있었던 자살클럽, 시체를 안을 수 있는 중국의 시체가게 등 죽음을 둘러싼 백태를 소개한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가벼운 읽을거리. 에피소드의 길이가 다소 짧아 시시콜콜하고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저 소개하는 것에 머무른 느낌을 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노블마인·1만2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낮선 공간에 남겨 된 여인의 기다림

### 그녀는 안개와... 김미진 지음

소설가 김미진씨가 첫 소설집을 냈다. 지난 1995년 장편소설 '모짜르트가 살아 있다면'으로 등단한 이래 10년 만이다.

"그녀는 안개와 함께 왔다"는 그동안 장편만 써왔던 저자가 틈틈이 계간지 등을 통해 발표했던 단편 9편이 실려 있다. 이 중에는 미발표작도 있다.

저자는 작가의 말을 통해 "3년 전 작가 생활 10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책을 한 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단편에 매달렸다"며 "습관이 전무해 장편 9편을 쓰는 것만큼이나 버겁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표제작 '그녀는 안개와 함께 왔다'는 낯선 공간에 남겨 된 여인의 기다림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사투리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주인공들을 떠올리며 쓴다고 말한다. 화가이기도 한 탓에 한 폭의 유희를 보는 듯한 문체가 이야기들을 이끌고 있다. <בל·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폴 오스터 '뉴욕 이야기'

20세기 초까지 문화 예술의 중심지는 파리였다. 세계 곳곳의 예술가들이 파리에 이주했다. 이제 그들 예술가의 허영이 이끄는 곳은 뉴욕이다. 예술가뿐 아니라 모든 분야 사람들의 허영이 향하는 대도시 뉴욕. '뉴욕 이야기'는 그 대도시에서 '등한시되고 있는', 그러나 아스팔트처럼 바닥을 이루며 견고하게 존재하는 익명의 사람들을 보여준다. 그 대척점에 있는 한 이방인의 '섞여들기' 게임이라는, 제 나름의 진지한 시도로.

"폴 오스터가 '거대한 괴물'에서 나를 자신의 작품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역할을 바꾸는 걸 상상했다. 나는 그에 허구의 인물을 하나 창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최대 1년 동안 그 인물처럼 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부담스럽다며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나를 위해 만든 시나리오를 따르기로 했다." (소피 칼)

참 매력적인 핸드북 '뉴욕 이야기'는 뉴욕계 폴 오스터(소설가)가 쓴 '뉴욕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소피 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될 교육 입문서 (그녀의 요구에 따른)'와 그를 실행에 옮기며 파리 여자 소피 칼(사진작가·개념미술가)이 사진과 글로 작성한 보고문이다.

폴 오스터는 4가지 지침을 준다. '미소짓기', '낯선 이들에

## 그곳이 어디든



게 말걸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인과 노숙자'에 대한 글이 특히 가슴에 와 닿는다.

"당신에게 이 세상을 다시 만들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보다 당신을 둘러싼 것들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당신이 밖에 있을 때, 이곳에서 저곳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만이라도요. 불행한 사람들을 모른 채하지 마세요." 폴 오스터는 권한다. 샌드위치와 담배를 준비해 다니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네라고.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등한시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사물들도 소홀히 여겨지고 있어요"라며 내린 마지막 지침은 '한 장소를 선택하기'다. 그 지침에 따라 소피 칼이 그리니치 4거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관리하며 겪는 일화들을 읽노라면 웃음이 터진다.

"누군가 상을 탕했다 보네요. 아마도 누가 여기서 죽었나 봐요." 한 여자의 코멘트다. 공공기물 훼손이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 매일 깨끗이 유리를 닦고 꽃을 꽂아놓고, 거울과 달력을 걸고 의자를 비치하고 사랑그릇을 놓아둔 전화 부스는 한 주일 후 전화국 직원들에 의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 책도 그렇지만, '옮긴이의 말'에 적힌 소피 칼의 작업들은 기발하다. 길에서 주운 전화부수 수첩의 주인을 추적하며 그 속에 적힌 사람들을 만나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한 '전화번호 수첩', 사설 탐정에게 자신을 미행하도록 해서 그 자료로 구성된 '미행' 등등. 하나의 우연도 허투루 놓치지 않으며 '현실과 허구를 뒤섞는 여러 방법'들에 전착하는 그녀처럼 살면 일상의 권태나 무력감이니 하는 병증이 씻은 듯 사라지리라.

황인숙 (시인)



movies

이제 영화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역국사거리 ☞예매1544-0800

M관 300 (18세)	최고등급
2관 이장과 군수 (12세)	
3관 그 여자작사, 그 남자작곡 (12세)/브레이크업:이별후애(애) (15세)	
4관 300 (18세)	
5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6관 블랙북 (18세)	
7관 넘버23 (15세)/수 (18세)	
8관 이장과 군수 (12세)	
9관 뷰티풀 선데이 (18세)	

Megatzen Day 매주 월-금 영화 4,000원 관람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취해-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이장과 군수 (12세)
2관 1번가의 기적 (15세)
3관 쓴다 (15세)
4관 행복을 찾아서 (전제)
5관 수 (18세)
6관 좋지아니한가 (15세)
7관 300 (전제)

금,토(2일) 심야상영  
\*지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 매주 최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공휴일제외)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매주 토요일 Teen Age Day 중, 고생 1,500원 할인 (공휴일제외)

항로시영 영화시영 • 예매: www.joycbc.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화관역면)

1관 넘버23 (15세)
2관 쓴다 (15세)/브레이크업:이별후애(애) (15세)
3관 이장과 군수 (12세)
4관 이장과 군수 (12세)
5관 수 (18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7관 300 (18세)
8관 블랙북 (18세)
9관 뷰티풀 선데이 (18세)
10관 300 (18세)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상급원예법 -11번 or 2번 -> 1번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점원리 상영중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넘버23 (15세)
2관 그 여자작사, 그 남자작곡 (12세)
3관 이장과 군수 (12세)
4관 뷰티풀 선데이 (18세)
5관 300 (18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7관 브레이크업:이별후애(애) (15세)/쓴다 (15세)
8관 수 (18세)
9관 블랙북 (18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탈레스 휘트니스를 위한 전용영구 마린 인터넷 예매 문의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1588-9101